

없이 넓고, 무한히 큰 것으로 본다. 사람의 신체 내부, 분자에서 미시하의 미립자에 이르기까지는 이 우주와 마찬가지로 크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드는 데에 극미시하에서 이미 그의 특정한 생명 성분과 그의 본질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과학이 이것을 연구하기에는 아직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전체 우주 중에 존재하는 고급지혜성구(高級智慧星球)의 그런 생명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히 낮다. 바로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도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지만, 다른 별에서 오는 비행접시는 직접 다른 공간 속에서 가는데, 그 시공(時空)의 개념마저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오려면 곧 오고, 가려면 곧 가는데, 빠르기가 사람의 관념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천목을 말하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당신이 통로에서 밖을 향해 내달릴 때, 당신은 그것이 가없이 무한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다른 정황이 보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한 갈래 터널을 따라 뛰는 것이 아니라 한 갈래 끝없는 큰길을 따라 앞으로 달리고 있다고 느낄 것인데, 길 양쪽에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도시가 있으며, 줄 곧 밖으로 내달린다. 듣기에는 더욱 허황하다. 나는 어떤 기공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는, 사람의 땀구멍 하나 속에 도시가 하나 있고, 그 속에서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린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듣고서 아주 놀랍고, 아주 허황하

올라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心性(썬썬) 수련을 중시해야 하는데, 우주의 眞(쩐)·善(싼)·忍(런) 특성에 따라 수련하여 속인 중의 욕망, 좋지 못한 마음, 나쁜 일을 하려는 생각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사상경지가 조금이라도 제고되어 올라왔다면 자신의 나쁜 것들도 이미 조금 버린 것이다. 동시에 당신이 또 고생을 좀 겪고 고통을 좀 겪어 자신의 업력을 좀 없애버리면 당신은 조금 승화해 올라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특성이 당신을 제약하는 힘이 그다지 크지 않게 된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功)은 사부에게 달렸다. 사부는 당신에게 공을 자라게 하는 공을 주는데, 이 공이 곧 작용을 일으켜 당신의 체외에서 당신의 德(더)란 이런 물질을 공으로 연화(演化)할 수 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제고하고 끊임없이 위로 수련하면 당신의 공기둥(功柱) 역시 끊임없이 위로 돌파한다. 한 수련인(修煉人)으로서, 속인의 환경 중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연마(魔煉)하여 집착심과 각종 욕망을 점차적으로 버려야 한다. 흔히 우리 인류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도, 고층차에서 보면 흔히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속인 중에서 개인이익을 많이 얻을수록, 잘살수록 좋다고 여기는데, 대각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더욱 좋지 않다. 어디가 좋지 않은가? 그가 얻는 것이 많을수록 그는 다른 사람을 더욱 해치고, 얻지 말아야 할 것을 얻는데, 그는 명리(名利)를 중히 여김으로써 그는 德(더)를 잃어버릴 것이다. 당신은 공이

자라게 하려 하지만, 당신이 心性(썸썸) 수련을 중시하지 않으면 당신의 공은 전혀 자라 오르지 못한다.

우리 수련계에서는, 사람의 元神(웬선)은 불멸(不滅)한다고 한다. 과거에 사람의 元神(웬선)을 말하면 사람들은 아마 미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리학은 우리 인체에 분자·양성자·전자가 있음을 연구했고, 아래로 쿼크·중성미자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해 냈다. 그 일보에 이르면 현미경으로도 보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본원(本源), 물질의 본원과는 거리가 아직 멀고도 멀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자핵의 분열은 상당한 에너지 충격과 상당히 큰 열량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으로 하여금 핵융합이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비로소 핵이 분열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때 인체 중의 원자핵이 어찌 함부로 죽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만 우리 이 층 공간, 이 층의 가장 큰 분자성분이 탈락될 뿐이고,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신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현미경 아래에서 보는 인체는 어떤 모양인가? 사람의 온 신체는 운동하고 있다.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온 신체는 운동하는데, 분자세포가 운동하고 있으며, 온 신체는 마치 모래로 구성된 것처럼 성글다. 현미경 아래에서 보는 인체는 바로 이러한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체와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사람의 이 한 쌍의 눈이 당신에게 일종의 가상(假相)을 조성해 주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원자핵, 전자, 쿼크이고, 현재 연구해 낸 최소 미립자는 중성미자다. 그러면 가장 작고 가장 작은 미립자는 무엇인가? 연구하려면 실로 너무나도 어렵다. 석가모니는 만년(晩年)에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그는 말했다: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 무슨 뜻인가? 여래 이 층차에서는, 크게는 우주의 변두리를 보아내지 못하고, 작게는 물질의 최소 미립자를 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라고 했다.

석가모니는 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학설을 말했다. 그는 우리 이 우주 중에, 우리 이 은하계 중에 우리 인류와 마찬가지로 색신(色身) 신체가 존재하는 별이 3천 개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모래 한 알 속에 또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했다. 모래 한 알이 바로 우주와 같아, 속에는 역시 우리같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별이 있으며, 또 산천 하류가 있다.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 속에 또 모래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삼천대천세계 속에 또 모래가 있고, 그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래 이 층차에서는 그것의 끝을 보아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분자세포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묻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우주, 그것은 변두리가 있다. 그러나 여래 이런 층차에서는 그것을 모두 가

하나 나타날 것이다. 연공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점차 하에 지며, 하얀 데서부터 점차 환해지는데, 최후에는 갈수록 환해져서 눈이 부신 것을 좀 느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태양을 보았다, 나는 달을 보았다. 사실 당신은 태양을 본 것이 아니고 달을 본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이 통로다. 어떤 사람은 층차를 돌파함이 비교적 빨라, 눈을 넣어준 후에는 직접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렵다. 그는 마치 터널 같고, 또 어떤 것은 우물 같기도 한 이 통로를 따라 연공할 때마다 밖으로 내달린다고 느끼는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자신이 밖으로 달린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달리고, 어떤 사람은 날고, 어떤 사람은 내달리며, 어떤 사람은 마치 차를 타고 밖으로 돌진한다고 느끼지만, 늘 끝까지 돌파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스스로 천목을 열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도가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소우주라면 앞이마에서 송과체(松果體)까지는 10만 8천 리에 그치지 않을 것인즉, 그는 늘 밖으로 돌진하지만 언제나 끝까지 돌파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도가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데, 아주 이치가 있다. 그의 조직구조가 우주와 아주 유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이 물질공간의 신체가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현재 과학이 인식한 물질신체의 세포 이하는 어떤 상태인가? 각종 분자 성분, 분자 이하는 원자, 양성자,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천목(天目)이 열리면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 본래 그것은 사람의 본능인데 현재는 특이공능이라고 하며, 당신이 특이공능을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반본귀진(返本歸真)해야 하고 되돌아 수련해야 한다.

우리 이 德(더)를 말해 보자. 그것들 사이의 구체적인 연대(連帶)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여 말해 보자. 우리 사람은 많고 많은 공간 중에 모두 신체가 존재한다. 우리가 현재 사람의 신체 성분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세포로서, 이것이 우리 사람의 육체다. 만약 당신이 세포와 분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진입한다면, 당신은 곧 이미 다른 공간에 진입했음을 체험할 것이다. 그 신체가 존재하는 형식은 어떤 것인가? 물론 당신은 현존하는 이 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신의 신체는 그런 공간이 요구하는 존재형식에 동화해야 한다. 다른 공간의 신체는 본래부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신은 그 역시 비할 바 없이 광활한 공간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일종의 간단한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지점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많은 공간에 모두 특정한 신체가 있으며,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인체 주위에는 그런 장(場)이 존재한다. 무슨 장인가? 이 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德(더)이다. 德(더)는 일종의 백색물질로서,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온 것처럼 사람의 정신적인 것이거나 사람의 의식 형태 중의 것이 아니며, 그것

은 완전히 일종의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과거에 노인들이, 德(더)를 쌓으라느니 德(더)를 잃는다느니 한 그 말은 너무나도 맞는다. 이 德(더)는 인체 주위에 있으며, 그것은 장을 형성한다. 과거에 도가에서는 사부가 도제(徒弟)를 찾지 도제가 사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무슨 뜻인가? 그는 이 도제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德(더)의 성분이 크냐, 크지 않은가를 보는데, 크면 그는 수련하기 쉽고; 크지 않으면 그는 수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는 공이 높게 자라기가 매우 어렵다.

동시에 또 일종의 흑색물질이 존재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업력(業力)이라 하고, 불교 중에서는 그것을 악업(惡業)이라 한다. 백색물질과 흑색물질, 두 가지 물질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물질 사이는 어떠한 관계인가? 德(더)란 이런 종류의 물질은 우리가 고생을 겪고, 타격을 감당하며, 좋은 일을 하여 얻는 것이고; 그 흑색물질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며, 남을 괴롭히는 데서 이런 흑색물질을 얻는다. 현재는 오직 이익을 꾀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 하고,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떤 나쁜 짓도 다 한다: 살인하여 생명을 해치고, 돈으로 목숨을 사며, 동성애, 마약 등등, 어떤 일이든 다 있다.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면 德(더)를 잃을 것이다. 어떻게 잃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는 이익을 보았고 분풀이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우주 중에는, 잃지 않은 자는 얻지 못하고 얻으려면 곧 잃어야 한다는 이치가 있다. 당신이 잃지 않으면 당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사람마다 모두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당신 자신과 직접 관계가 있다. 괜찮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괜찮으니 천천히 수련하라. 당신이 끊임없이 충차를 제 고함에 따라 당신은 점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똑똑히 보지 못하다가 차츰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이 이 한 마음을 굳게 하고 수련할 때면, 당신에게서 흠어져 없어졌던 것이 모두 보충되어 올 것이다.

스스로 천목을 열기는 비교적 어렵다. 나는 스스로 천목을 여는 몇 가지 형식이 있음을 말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사람이 가부좌하고 있을 때, 앞이마를 관찰하고 천목을 관찰하면 앞이마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느낀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는 앞이마가 점차 하얗게 밝아지는 것을 느낀다. 한동안 수련하면 그는 앞이마가 점차 환해지며 환해진 후에 붉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에 이르면 그것이 꽃잎처럼 뒤집힐 것인데, 마치 영화나 텔레비전에서처럼 꽃봉오리가 순식간에 피어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 붉은 색은 원래는 평평한데, 단번에 가운데서부터 부풀어 올라 끊임없이 뒤집히고 끊임없이 뒤집힌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전부 뒤집어 넘기려 한다면, 10년 8년이라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온 천목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천목은 막히지 않아, 그는 통로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연공(煉功)하지 않고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연공할 때 갑자기 눈앞에 검고 둥그런 것이

이 큰 눈을 통해서 보며, 무엇을 보려면 바로 그것을 보는데, 한번 척 보면 모든 층차를 다 본다. 현재 동물학자·곤충학자들은 파리를 연구한다. 파리의 눈은 아주 크며,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 속에 무수한 작은 눈이 있는데 그것을 복안(複眼)이라고 한다.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아마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여래보다 훨씬 높아야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속인은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층차에서도 그것의 존재를 보지 못하며, 단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음을 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층차의 돌파, 바로 각개 공간을 돌파할 수 있다는 문제를 말한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천목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했다. 우리가 외력(外力)으로 당신의 천목을 열어주기는 비교적 빠르고, 비교적 쉽다. 내가 천목을 말할 때, 우리 매 사람의 앞이마가 모두 조여들어 살이 한데로 모이고, 모여서는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렇지 않은가? 이런 것이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모두 감각이 있을 것인데, 힘 또한 아주 커서 안으로 민다. 우리는 당신에게 천목을 여는 전문적인 공(功)을 내보내어 당신의 천목을 열어주는 동시에, 또 法輪(파룬)을 내보내어 당신을 위해 보수(修補)해 준다. 우리가 천목을 말할 때,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람마다 열어준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모두 똑똑히 볼 수

으로 하여금 강제로 잃게 한다. 누가 이런 작용을 하는가? 바로 우주의 이 특성이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얻으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는가? 그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그는 德(더)를 상대방에게 던져줄 것이며; 상대방은 억울함을 당한 쪽이고, 잃은 쪽이며, 고통을 당한 쪽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해 준다. 그가 이쪽에서 그를 욕하면 그가 욕함에 따라 곧 자신의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에서 한 덩이 德(더)가 날아가 남의 몸에 떨어진다. 그가 심하게 욕할수록 남에게 주는 德(더)는 더욱 많아진다. 남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찰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德(더)가 넘어간다. 속인은 이 층의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여겨 견뎌내지 못한다. 네가 날 때렸으니 나도 널 때리겠다. ‘퍽’ 그에게 한 주먹 맞받아쳐서 이 德(더)를 밀어 되돌려 보냄으로써, 두 사람 모두 잃지도 않고 얻지도 못했다. 그는 생각할 것이다: 네가 날 한 대 치면 나는 널 두 대 치지 않고서는 이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는 한 대 더 쳐서 자신의 몸에서 또 한 덩이 德(더)를 날려 보내 상대방에게 준다.

왜 이 德(더)를 이렇게 중히 보는가? 이 德(더)는 어떤 관계로 전화(轉化)하는가? 종교 중에서는 말한다: 이 德(더)가 있으면, 금생에 얻지 못하면 내세에 얻는다. 그는 무엇을 얻는가? 그의 德(더)가 크면 아마 높은 벼슬을 할 것이고, 큰돈을

별 것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을 것인데, 바로 이 德(더)로 교환해 온 것이다. 또 종교 중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 德(더)가 없으면 형신전멸(形神全滅)한다고 한다. 그의 元神(웬션)이 없어져, 그는 일생을 마친 뒤 전부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수련계에서는 德(더)를 직접 공으로 연화(演化)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德(더)를 어떻게 공으로 연화하는가를 말해 보자. 수련계에는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정설로(安鼎設爐), 채약연단(採藥煉丹), 의념활동을 말하는데, 그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며, 당신이 생각을 많이 하면 곧 집착심이다. 당신이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로 집착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으므로 당신은 이런 소원만 있으면 된다. 진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부가 해주는 것이지 당신은 전혀 해낼 수 없다. 당신은 속인의 신체인데, 이런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그런 고급생명체를 연화(演化)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전혀 안 되며 말만 해도 모두 웃음거리다. 인체가 다른 공간에서 연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현묘(玄妙)하고 상당히 복잡해서, 당신은 이런 일들을 전혀 해낼 수 없다.

사부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가? 당신에게 공을 자라게 하는 공을 줄 것이다. 德(더)는 사람의 체외에 있고, 사람의 진

이라 하는데, 즉 모든 혈위(穴位)가 다 눈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한 것 역시, 법이 신체에서 연변(演變)한 한 가지 형식이므로,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층차는 이것과 또 같지 않다. 주통로 이외에 두 눈썹, 눈까풀 위, 눈까풀 아래와 산근(山根) 등 몇몇 부위에도 몇 개 주요한 부통로가 있다. 그것들이 곧 층차 돌파 문제를 결정한다. 물론 일반 수련인으로서, 만약 이 몇몇 곳으로 모두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돌파한 층차는 이미 아주 높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눈도 수련해서 역시 각종 형식의 공능을 구비했다. 그러나 이 눈을 잘 장악하지 못하면, 그가 늘 이 물체는 보지만 저 물체는 보지 못하는 데, 역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히 한 눈으로는 저쪽을 보고, 또 한 눈으로는 이쪽을 본다. 그러나 이쪽 눈(오른쪽 눈) 밑에는 부통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오른쪽 눈을 쓰기 좋아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 밑에는 부통로가 없다. 이는 世間法(쓰젠파) 수련 중에 나타나는 몇 개 주요한 부통로를 가리킨 것이다.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러,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난 이후에는 또 일종의 복안(複眼)과 같은 그런 눈이 나타날 것이다. 즉 온 얼굴의 상반부에 큰 눈이 하나 생길 것인데, 그 속에 무수한 작은 눈들이 있다. 어떤 아주 높은 대각자가 수련해 낸 눈은 특별히 많아 온 얼굴에 다 있다. 모든 눈은 다

하지 않으며, 보수를 바라지 않고, 명예 또한 바라지 않아 속인 중의 모범 인물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 이는 완전히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천목이 열린 후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빛의 자극을 심하게 받아 눈부심을 느낀다. 사실 당신의 눈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송과체를 자극한 것인데, 당신은 마치 눈을 자극한 것처럼 느낀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이 눈이 없기 때문인데, 당신에게 이 눈을 넣어준 후에는 당신은 눈이 부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일부 사람은 이 눈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과 우주의 본성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아주 천진하고 호기심도 매우 많아, 역시 안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인데, 당신의 천목이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는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며, 그것도 안으로 당신을 들여다본다. 이때 당신의 천목 역시 열렸고, 그것이 마침 당신을 보고 있어, 갑자기 당신이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눈으로서, 당신이 금후 다시 물건을 볼 때는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보는데, 당신은 이 눈이 없으면 전혀 보지 못하며 열렸다 해도 보지 못한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층차를 돌파하여 각개 공간의 차이를 현현(顯現)해 내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층차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건을 보는 데에는 주통로 외에 사람에게에는 또 많은 부통로가 있다. 불가에서는 땀구멍 하나하나가 다 눈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신체의 모든 규(竅)가 다 눈

정한 공은 곧 德(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층차 높이, 공력의 크기는 전부 그 德(덕)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德(덕)을 공으로 연화하여 나선식으로 위로 자라게 한다. 진정으로 사람의 층차 고저를 결정하는 공은 체외에서 자라며, 최후에는 나선식으로 정수리까지 자란 다음 한 가닥 공기둥을 형성한다. 이 사람의 공이 얼마나 높은가는 그의 공기둥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그의 층차로서 불교 중에서 말하는 과위(果位)이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할 때 元神(웬션)이 신체를 떠날 수 있어 단번에 얼마만한 높이로 올라가는데, 더 높게는 올라가려 해도 올라가지 못하며, 감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공기둥에 앉아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는 곧 그만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의 공기둥이 그만한 높이이기 때문에 더 높게는 그는 역시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불교 중에서 말하는 과위 문제다.

心性(썬썬)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늠하는 데는 또 척도가 있다. 척도와 공기둥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도리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의心性(썬썬)이 수련되어 올라오면, 예컨대 속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욕을 한 마디 해도 당신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아주 태연하며, 당신을 주먹으로 한 대 쳐도 역시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번 웃고 지나간다면 이 사람의心性(썬썬)은 이미 아주 높다. 그러면 당신이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당

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공을 얻지 않는가? 당신의 心性(썬썬)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공은 곧 자라 올라온다. 心性(썬썬)이 얼마만큼 높으면 공도 그만큼 높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연공(練功)하던 집에서 연공하던 연마(練)에 무척 정성을 들이고 아주 경건하며 연마(練)함도 괜찮았다. 그러나 문만 나서면 그가 아니다. 제멋대로 하며 속인 중에서 명예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데, 그의 공이 자랄 수 있겠는가? 전혀 자랄 수 없으며, 그의 병이 나을 수 없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왜 어떤 사람은 장기간 연공(練功)해도 병이 낫지 않는가? 기공은 수련으로서, 초상(超常)적인 것이며 속인 중의 체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心性(썬썬)을 중히 여겨야만 병이 낫거나 공이 자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설로(安鼎設爐)·채약연단(採藥煉丹)의 이 단(丹)이 바로 공이라고 여기는데, 아니다. 이 단(丹), 그것은 일부 에너지만을 저장하는 것이지, 그것은 에너지의 전부가 아니다. 단(丹)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에게서 또 별도로 일부 명(命)을 닦는 것이 있어 신체에는 역시 공능이 나와야 하며, 또 많고 많은 술류(術類)의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잠가 놓아 당신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많은 공능, 만여 종의 공능이 있는데, 하나를 형성하면 그 하나를 잠가 둔다. 왜 나오지 않는가? 목적은 당신이 속인사회에서 그것을 운용하여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면서 보고 있는데, 아주 또렷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안(魔眼)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佛眼) 등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눈이다. 물론,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 수련인의 공의 전반 연화(演化) 과정은, 다른 공간에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서, 또 다른 한 공간뿐이 아닌 모든 공간, 각개 공간 중의 신체가 모두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 자신이 해낼 수 있는가? 해내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사부가 안배한 것이며, 사부가 한다. 그러므로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고 한다. 당신 자신은 다만 이런 소원만 있고 이렇게 생각할 뿐, 진정 그 일은 사부가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연마(煉)하여 천목을 여는데, 우리가 당신의 눈이라고 하지만 당신 자신은 연화해 낼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사부가 있어 사부가 당신의 천목이 열린 것을 보고 당신에게 눈을 하나 연화해 주는데, 그것을 진안(眞眼)이라고 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부가 없지만 길을 지나가는 사부가 있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부처는 없는 곳이 없어 어디에나 있는, 이런 정도로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머리 석 자(三尺) 위에 신령이 있다. 바로 매우 많다는 말이다. 길을 지나던 사부가 보니 당신이 연마(煉)를 괜찮게 하여 천목은 이미 열렸으나, 눈이 없으므로 하나를 연화(演化)해 당신에게 주는데, 이것 역시 당신 자신이 연마해 낸 것으로 쳐 준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도함에 조건을 논하지 않고, 대가를 논



이며, 그는 德(더)를 잃어갈 것이다.

德(더)란 이런 물질은 손실된 후에 그것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그러나 이런 정화지기, 그것은 흩어져버릴 수 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매우 교활하고 이기심이 아주 강해 오직 이익만 탐낸다면, 흔히 이런 사람은 천목이 열린 후에도 안 되며 똑똑히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수련과정 중에서 바로 반본귀진(返本歸眞)하려 하는데, 끊임없이 연공(煉功)하면 끊임없이 보충되며 새롭게 보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心性(썬썬)을 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정체제고(整體提高), 정체승화(整體昇華)를 중시한다. 心性(썬썬)이 올라오면 다른 것들도 모두 따라 위로 올라오며, 心性(썬썬)이 올라오지 못하면 천목의 그만한 정화지기도 보충될 수 없는데, 바로 이 이치다.

두 번째 요소는, 곧 자신이 연공(煉功)할 때, 만약 근기가 좋으면 역시 천목을 연마(煉)해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천목이 막 열릴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왜 깜짝 놀라는가? 일반적으로 연공(煉功)은 모두 저녁 자시(子時), 밤이 깊어 인적이 없을 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가 연마(煉)하고 연마하는데 돌연 눈앞에 커다란 눈 하나가 보여, 순간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렇게 놀란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이때부터 다시는 감히 연마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가! 그렇게도 커다란 눈 하나가 깜박깜박하

속인사회를 함부로 교란할 수 없게 하며, 또 속인사회 중에서 당신이 능력을 함부로 나타낼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인사회의 상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깨달음 중에서 수련하는데, 당신이 그에게 다 나타낸다면 사람들이 보고 정말이므로 모두 와서 수련할 것이며, 십악불사(十惡不赦)한 사람도 모두 와서 수련할 것인즉, 그러면 안 된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과시할 수 없게 하며; 당신이 또 나쁜 일을 하기 쉬운 것은 당신이 그것의 인연관계를 보지 못하고 당신이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하여 당신은 좋은 일을 한다고 여기지만, 한 것은 나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나쁜 일을 하기만 하면 충차가 떨어져 수련이 헛되기에 많은 공능을 잠가 둔다. 어떻게 하는가? 개공개오(開功開悟)하는 그날에, 이 단(丹)은 곧 한 발의 폭탄이다. 그것이 모든 공능, 신체의 모든 자물쇠와 백규(百竅)를 전부 폭파해 ‘팍’하고 진동하면 전부가 진동하여 열리는데, 바로 이것을 하는 데 쓴다. 화상(和尚)이 죽은 뒤에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뼈나 이[牙]라고 한다. 속인은 왜 없는가? 바로 그 단(丹)이 폭발하여 그것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 것인데, 그 자체는 다른 공간의 물질을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어쨌든 그것 역시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별 쓸모가 없다. 현재의 사람은 그것을 아주 진귀한 물건으로 보는데, 그것은 에너지가 있고 광택이 있으며 매우 단단한, 바로 이런

것이다.

공이 자라지 않는 데는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곧 고층차 중의 법을 모르고서는 수련하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많은 공법을 연마(練)했다. 내가 알려주는데,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해도 쓸모가 없고, 역시 다만 초등학생일 뿐이며, 수련 중에서는 초등학생으로서, 모두 저층차 중의 이치다. 당신이 이런 저층차 중의 이치로써 고층차로 수련하려 한다면 지도 작용이 없다. 대학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고,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다.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는 부동한 층차 중의 법이 있다. 법은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층차 중의 이치를 가지고는 당신이 고층차로 수련하는 것을 지도할 수 없다. 우리가 이후에 명백히 논술하려는 것들은 모두 고층차 중에서 수련하는 이치다. 나는 부동한 층차 중의 것들을 결합하여 강의하기에 당신이 금후 수련하는 중에 줄곧 지도 작용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서는 책 몇 권이 있고 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가 있다. 당신이 한 번 보고 들은 다음,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보고 다시 들으면 보증코 당신에게 또 지도 작용이 있음을 당신은 그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제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지도 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이다. 이상이 연공(煉功)해도 공이 자라지 않는 두 가지

익, 칠정육욕을 아주 담담하게 보아 정화지기가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천목이 열린 후에는 비교적 똑똑히 볼 수 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열린 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으며, 열기도 쉬워 말 한 마디면 바로 열 수 있다.

속인사회의 거센 흐름(大洪流), 큰 염색항아리(大染缸)의 오염으로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많은 것이 모두 그릇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잘살려고 하지 않는가? 잘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사람의 이기적인 심리를 조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점유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속인 중에서 다투고 싸운다면, 이것은 우주의 특성과 상반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를 가르칠 때, 어른은 흔히 그가 장래 속인사회 중에서 발붙일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너는 좀 약해 놀아라.”라고 가르친다. ‘약다’는 것은 우리 이 우주 중에서 볼 때 이미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고 개인의 이익을 담담히 보라고 한다. 그가 이렇게 약은 것은 바로 개인의 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누가 널 괴롭히면 너는 그의 선생님을 찾고 그의 부모를 찾아라.”, “돈을 보거든 주워라.” 바로 이렇게 그를 가르친다.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이 어린이는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 그는 속인사회 중에서 서서히 이기적 심리가 갈수록 커져서, 그는 부당한 이익을 점유할 것

목을 열어주었다 해서 무엇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 층차 구분이 있다. 그러면 이 층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람의 천목은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장(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화지기(精華之氣)라고 한다. 그것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마치 텔레비전의 형광판과도 같은데, 만약 형광분이 없다면, 텔레비전을 켜도 그것은 전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빛만 있고 영상은 없다. 바로 형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로소 영상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이 예가 아직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고, 그것은 형광판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요만한 정화지기(精華之氣)는 극히 진귀한 것으로서, 덕(德)에서 정련해 낸 더욱 정화(精華)적인 것으로 구성되었다. 흔히 때 사람에게 존재하는 정화지기는 모두 같지 않은데, 만 명 중에서 같은 층차 중에 있는 사람을 찾자면 아마 두 사람 있을 것이다.

천목의 층차는 바로 우리 이 우주 중의 법의 직접적인 체현이다. 그는 초상(超常)적인 것으로서 사람의心性(썬썬)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心性(썬썬)이 낮으면 그의 층차도 낮다. 왜냐하면心性(썬썬)이 낮으면 그의 요만한 정화지기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며, 이 사람의心性(썬썬)이 아주 높으면 그는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속인사회 중에서 명(名), 이(利),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개인이

원인이다. 고층차 중의 법을 모르고서는 수련할 수 없으며, 안으로 수련하지 않아心性(썬썬)이 수련되지 않으면 공이 자라지 않는다.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이다.

### 法輪大法(파룬파파)의 특징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는 불가의 8만 4천 법문(法門) 중에 한 법문으로서, 우리 이번 차례 인류문명의 역사시기에는 여태껏 공개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전(史前) 한 시기에는 광범위하게 사람을 제도한 적이 있다. 내가 말겁(末劫) 최후시기에 다시 한 차례 그를 널리 전한다. 그러므로 그는 극히 진귀하다. 나는德(더)가 직접 공으로 전화(轉化)되는 이런 한 가지 형식을 말했다. 공은 사실 연마(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닦아(修)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이 자라기를 추구하면서, 다만 어떻게 연마(練)하는가를 중시할 뿐 어떻게 닦는가는 중시하지 않는데, 사실 공은 완전히心性(썬썬)을 닦아서 수련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여기에서도 사람에게 연공(煉功)을 가르치는가? 먼저 말하겠는데, 화상(和尚)은 왜 연공(煉功)하지 않는가? 그는 주로 가부좌하고, 경(經)을 읽으며,心性(썬썬)을 닦으면 그는 곧 공이 자라는데, 그는 곧 그의 층차 높이로 공이 자란다. 석가모니는本體(번티)를 포함한 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체적인 동작이 필요하지 않았다. 도가에

서는 중생 제도를 말하지 않으며, 그가 상대하는 사람은 각종 심태, 각종 층차, 어떤 사람이든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심(私心)이 많은 어떤 사람, 사심이 적은 어떤 사람인 것이 아니다. 그는 도제(徒弟)를 선택함에 도제 셋을 찾아도 그중 한 사람에게만 진수를 전하는데, 이 도제는 반드시 德(더)가 높고 좋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중점적으로 그의 수법(手法)상의 것을 전하여 명(命)을 닦게 한다. 신통술류(神通術類) 같은 것을 연마(煉)하는, 이것은 일부 동작이 있어야 한다.

法輪大法(파룬파파) 역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기에, 연마(煉)할 동작이 있어야 한다. 동작은, 한 방면으로는 공능을 가지(加持)하는 데 쓰는데, 무엇을 가지라고 하는가? 당신의 강대한 공력(功力)으로 당신의 공능(功能)을 강화하여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당신의 신체 속에서 또 많은 생명체를 연화(演化)해 내는 것이다. 고층차의 수련에 이르면, 도가에서는 원영출세(元嬰出世)를 말하고, 불가에서는 금강불괴지체(金剛不壞之體)를 말하며, 또 많고 많은 술류의 것을 연화해 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수법(手法)을 통해 연련(演煉)해야 하는데, 동작은 이런 것들을 연마(煉)하는 것이다. 완정(完整)한 한 세트 성명쌍수 공법이라면 닦기(修)도 해야 하고 연마(煉)도 해야 한다. 나는, 이 공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당신의 층차 고저를 결정하는 공은 전혀 연마(煉)해 내는 것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마다 모두 천안통 천목이 열렸다면 그것이 인류사회이겠는가? 인류사회를 심하게 교란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정말로 당신을 이 한 층차로 열어준다면 당신은 아마 즉시 기공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기공사가 되려 했는데 이렇게 천목이 열렸으므로 마침 다른 사람의 병을 봐줄 수 있게 되었다. 이진 내가 당신을 샀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당신을 어느 층차로 열어주는가? 나는 당신을 직접 해안통, 이 층차로 열어준다. 고층차로 열어주자니 당신의 心性(썌썌)이 모자라고, 저층차로 열어주자니 속인사회 상태를 심하게 파괴할 수 있다. 해안통으로 열어줌으로써, 당신은 벽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거나, 인체를 투시하는 이런 능력은 구비하지 않지만, 당신은 오히려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연공(煉功)하는 신심(信心)을 북돋워 줄 수 있고, 당신은 속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며, 당신은 그것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느낄 것이다. 지금 당신이 푹 푹히 보든 푹푹히 보지 못하든 당신에게 모두 이 층차로 열어줌으로써 당신의 연공(煉功)에 좋은 점이 있다.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心性(썌썌) 제고를 엄격히 요구하면 이 책을 보아도 같은 효과가 있다.

사람의 천목 층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천

어 주지 않으며,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보고 물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목 층차가 아주 높은 사람, 그는 우리 공간을 투과하여 다른 시공을 볼 수 있고 속인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며, 층차가 높지 않은 사람은 꿰뚫는 힘이 있을 수 있어 벽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거나 인체를 투시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런 공능을 구비하고 있다.

불가에서는 5통(五通)을 말한다: 육안통(肉眼通)·천안통(天眼通)·혜안통(慧眼通)·법안통(法眼通)·불안통(佛眼通)이다. 이것이 천목의 5대(五大) 층차로서 매 한 층차는 또 상, 중, 하로 나뉜다. 도가에서는 구구팔십일층(九九八十一層) 법안(法眼)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천목을 열어주지만, 천안통(天眼通) 이하로는 열어주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비록 당신이 여기에 앉아서 수련을 시작했지만, 당신은 필경 속인 중에서 방금 첫걸음을 떼었으므로 아직도 많은 속인의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만약 천안통 이하로 열어준다면 당신은 속인이 인정하는 특이공능(特異功能)이 나올 것이며, 당신은 벽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고, 인체를 투시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공능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전하여 사람마다 모두 이런 정도로 열어준다면 속인사회를 심하게 교란할 것이며 속인사회 상태를 파괴할 것이다. 국가 기밀마저 모두 지킬 수 없고, 사람이 옷을 입으나 입지 않으나 매한가지며,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당신이 밖에서 다 볼 수 있고, 거리를 가다 복권이 눈에 띄면 그 1등상을 당신이 모두

이 아니고 닦아(修) 내는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는 과정 중에, 속인 중에서 당신의 心性(썬썬)을 제고하고 우주의 특성에 동화함으로써, 우주의 특성이 당신을 제약하지 않게 되어 당신은 곧 승화해 올라올 수 있다. 이 德(터)는 곧 공으로 연화되기 시작하며, 당신의 心性(썬썬)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이 곧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관계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진정한 성명쌍수 공법에 속한다. 우리가 연마(煉)하는 공은 신체의 매 세포 중에 저장되는데, 줄곧 극미시(極微觀) 상태하에 존재하는 물질본원(物質本源)의 미립자 성분 중에까지 모두 그 고에너지물질의 공을 저장한다. 당신의 공력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그것의 밀도도 더욱 높아지며, 그것의 위력도 더욱더 커진다. 이런 고에너지 물질은 영성(靈性)을 갖고 있어 사람 신체의 매 세포 중에, 생명의 본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당신의 신체세포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고, 분자 배열순서 역시 같고, 모든 원자핵의 형태와도 같은 것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본질은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서, 이미 원래 육체세포로 구성된 이런 신체가 아니므로, 당신은 오행(五行) 중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당신의 수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은 아직도 속인 중에서 수련하므로 외관상으로 보면 속인과 같은데, 유일한 구별은 바로 당신이 동년배에 비해 아주 젊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질병을 포함해 당신 신체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병 치료를 하지 않고 신체를 청리(清理)하며, 용어 역시 병 치료라 하지 않고 신체청리(清理身體)라고 하는데,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을 위해서 신체를 청리해 준다. 어떤 사람들은 병 치료만 하려고 온 것이다. 위중한 환자, 그를 우리가 학습반에 들이지 않는 것은, 그가 병을 치료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병이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병에 걸려 매우 괴로운데 그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는 수련하지 못한다. 우리는 중병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여기는 수련이라 그가 생각하는 일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에 그는 다른 기공사를 찾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수련생에게 병이 있으나, 당신은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이 일을 해주려고 한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은 한동안 수련하고 나면 외관상 변화가 아주 크다. 피부는 부드럽게, 희고도 불그레하게 변하며,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도 주름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많이 줄어드는 일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나는 여기서 허황하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노수련생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년 부녀자들은 또 생리가 올 것인데, 성명쌍수 공법에서는 당신의 명(命)을 닦는 데에 경혈지기(經血之氣)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리가 오지만, 많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고만한 정도면 되는데 이 역시 보

우리가 진정하게 물건을 보고 한 사람을 보며 한 물체가 존재하는 형식을 보는 것은 사람의 대뇌에서 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눈을 통해 보고, 다시 시신경(視神經)을 통해 대뇌 후반부의 송과체(松果體)에 전도(傳導)하여 이 한 구역 중에서 그것이 영상으로 반영되어 나오게 한다. 이는 곧 진정하게 영상을 반영해 물건을 보는 것은 우리 대뇌의 송과체 이 한 부분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천목 열기란 바로 사람의 시신경을 피하고 사람의 양미간에 통로를 열어 놓아 송과체가 직접 밖을 내다 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곧 천목 열기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것 역시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이 한 쌍의 눈은 필경 도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물체를 찍을 수 있는데, 눈이 없으면 역시 안 되지 않은가. 현대의학의 해부학에서는 이미 이 송과체 전반(前半) 부분에 그것이 사람 눈의 조직 구조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이 사람의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퇴화된 눈이라고 한다. 퇴화된 눈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 수련계에서는 아직 보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현재 의학에서는 이미 사람의 머리 가운데 그 부위에 눈이 하나 있음을 인식했다. 우리가 열어 놓는 이 한 갈래 통로는 마침 그것의 이 한 점과 마주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의학상의 인식과 들어맞는다. 이 눈은 우리 이 한 쌍의 육안처럼 사람에게 가상을 만들

우리가 미시하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일정한 미시하의 것을 그는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사람이 이 물질공간의 이 한 쌍의 눈이 있게 된 후부터 곧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상(假相)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수련계에서는 예부터 이런 사람을 오성(悟性)이 좋지 않아 속인의 가상에 미혹되었으며 속인 중에 미혹되었다고 여겼다. 이것은 종교 중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말로서, 사실 우리가 보아도 역시 이치가 있다.

이 한 쌍의 눈은 우리 현존하는 물질공간의 물건을 이런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는, 이것 외에 그것은 무슨 큰 능력이 없다. 사람이 물건을 보는 것 역시 눈에 직접 상(象)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눈은 사진기의 렌즈와 같이 단지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할 뿐이다. 먼 곳을 보려면 렌즈를 길게 뽑아야 하듯이, 우리의 눈도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어두운 곳을 볼 때는 동공이 확대되어야 하듯이 사진기도 어두운 곳에서 찍으려면 그 조리개를 역시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출량이 부족하여 모두 검게 되며; 바깥의 아주 밝은 곳으로 나가면 동공이 재빨리 축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이 부시어 아무것도 똑똑히 보이지 않듯이 사진기 또한 이런 원리로서 조리개를 역시 축소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물체를 찍을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은 단지 한 가지 도구일 따름이다.

편적인 현상이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모자라면 당신이 어떻게 명(命)을 닦겠는가? 남자 역시 노인이나 청년이나 모두 온몸이 가쁜함을 느낄 것이다.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런 변화를 느낄 것이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연마(煉)하는 것이 아주 크며, 다른 많은 공법처럼 동물을 모방해 연마(練)하지 않는다. 이 한 세트 공법이 연마(煉)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크다. 석가모니·노자가 그때 말한 이치는 모두 우리 은하계 범위 내의 이치였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가 연마(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주의 연화원리(演化原理)에 따라 수련하며, 우주의 최고 특성 - 眞(전)·善(싼)·忍(런) 표준에 따라 우리의 수련을 지도한다. 우리는 이처럼 큰 것을 연마(煉)하는데, 우주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는 또 하나 극히 특수하고, 모든 공법과 다 같지 않은 최대 특징이 있다. 지금 사회에서 유전하는 기공은 모두 단도(丹道)로 가고, 연단(煉丹)하는 것에 속한다. 연단하는 기공으로 속인 중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에 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는 단도로 가지 않는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아랫배 부위에法輪(파룬)을 수련하는데 학습반에서 내가 직접 수련생들에게 넣어준다. 내가法輪大法(파룬파파)를 강의할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法輪(파룬)을 잇달아 넣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감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다. 대다수 사람은 감각이

있는데, 사람마다 신체 소질(素質)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法輪(파룬)을 연마(煉)하지, 단(丹)을 연마(煉)하지 않는다.法輪(파룬)은 우주의 축소판으로서, 우주의 모든 공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는 자동적으로 운행(運轉)·회전(旋轉)할 수 있다. 그는 당신의 아랫배 부위에서 영원히 도는데, 일단 당신에게 넣어준 후에는 다시는 벗지 않으며 늘 영원히 이렇게 돈다. 그는 바른쪽으로 도는 과정 중에서 자동적으로 우주 중의 에너지를 흡취(吸取)할 수 있고, 그 스스로 에너지를 연화(演化)할 수도 있어 당신 신체의 각개 부분마다 연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동시에 그가 반대쪽(반시계방향)으로 돌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 폐기 물질을 쳐서 내보낸 후, 신체 주위에서 흩어져 버리게 한다. 그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아주 멀리 쳐서 내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끌어들이 수 있다. 그가 쳐서 내보낸 에너지는 당신 신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다. 불가는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중시한다. 자신을 수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따라서 이로울 수 있는데,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조정(調整)해 주거나 병 치료 등등을 해 줄 수 있다. 물론 에너지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法輪(파룬)이 바른쪽(시계방향)으로 돌 때, 그 자신이 거둬들이 수 있는데, 그가 항상 벗지 않고 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왜 이法輪(파룬)은 벗지 않고 항

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높은 층차 중에서 보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떤 시공(時空)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된 것이어서 당연히 부동(不同)한 시공은 부동한 물질구조가 있으며 부동한 생명체의 각종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주겠다. 불교 중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현상이 모두 환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찌하여 환상인가? 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거기에 놓여 있는 물체, 그것을 누가 가짜라고 할 수 있는가? 물체가 존재하는 형식은 이런 것이지만, 그것의 표현 형식은 도리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오히려 일종의 공능이 있어 우리 물질공간의 물체를 우리가 지금 본 이런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이런 상태가 아니며 우리 이 공간 중에서도 그것은 이 상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사람을 본다면 어떤 모양이겠는가? 온 신체는 성글고, 소분자(小分子)로 구성된 것인데, 마치 모래와 같은 과립(顆粒) 모양이고, 운동하는 것으로서, 전자(電子)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운동하고 있고, 온 신체는 모두 연동(蠕動)하며 운동하고 있다. 신체 표면은 매끄럽지 않으며 불규칙하다. 우주 중의 어떤 물체, 강(鋼)·철(鐵)·돌 모두 마찬가지로, 그것 속의 분자 성분은 모두 운동하지만, 당신은 전반 형식을 다 보지 못하는데, 사실 그것은 모두 안정된 것이 아니다. 이 책상 역시 연동하고 있지만 눈은 오히려 진상을 보지 못하는데, 이 한 쌍의 눈은 사람에게 일종의 착각을 조성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천목의 구조는 비밀 중의 비밀에 속했기 때문에 속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예부터 또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또한 과거의 그런 이론을 둘러싸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대과학으로, 가장 알기 쉽고 통속적인 현대 언어로 해석하며 또한 그것의 근본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천목은 실질적으로 바로 사람의 양미간 조금 위, 송과체(松果體)에 연결되는 이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주통로다. 신체에는 또 많고 많은 눈이 있는데, 도가에서는 매 규(竅)가 모두 눈이라고 한다. 도가에서는 신체의 혈위(穴位)를 규(竅)라 하고, 중의(中醫)에서는 혈위(穴位)라 한다. 불가에서는 땀구멍 하나하나가 다 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로 글자를 알아내고 또한 손이나 뒤통수로도 보며 또 어떤 사람은 발로 보고 배로 본다고 하는데, 모두 가능하다.

천목을 말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우선 우리 사람의 이 한 쌍의 육안을 말해 보자. 현재 어떤 사람은, 이 한 쌍의 눈은 우리 이 세계 중의 어떤 물질, 어떤 물체든 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일종의 고집스러운 관념이 생겨서 그는 눈을 통해 본 것만이 확실하고 확실한 것이라 여기며,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과거에는 줄곧 이런 사람을 오성(悟性)이 좋지 않다고 여겼는데, 일부 사람은 역시 왜 오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은 듣기에는 아주 이치에 맞

상 돌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는다: 그는 어찌 하여 돌 수 있습니까?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모여 단(丹)을 형성한다는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만,法輪(파룬)이 회전함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데, 우주는 운동하고 있고, 우주 중의 모든 은하계, 모든 성계(星系)가 모두 운동하고 있으며, 9대 행성이 태양을 둘러싸고 돌고 있는가 하면, 지구 또한 자전(自轉)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누가 그것을 밀어 주었는가? 누가 그것에 힘을 가해 주었는가? 당신이 속인 중의 그런 개념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일종의 선기(旋機)이다. 우리의法輪(파룬) 역시 이러하며 그는 곧 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속인이 정상적인 생활 상태하에서 연공(煉功)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연공 시간을 증가시켰다. 어떻게 증가시켰는가? 그가 몇지 않고 회전하기 때문에 끊임 없이 우주 중에서 에너지를 흡취(吸取)하고, 에너지를 연화(演化)한다. 당신이 출근해도 그가 당신을 연마(煉)하고 있다. 물론 또法輪(파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신체에 많고 많은 기능(機能)·기제(機制)를 넣어주는데, 모두法輪(파룬)과 연대하여 자동으로 돌고 자동으로 연화한다. 그러므로 이 공(功)은 모두 완전히 자동으로 사람을 연화하고 있어 ‘공이 사람을 연마함(功煉人)’을 형성하는데, 또 ‘법이 사람을 연마함(法煉人)’이라고도 한다. 당신이 연공(煉功)하지 못할 때에 공(功)이 당신을 연마(煉)하고, 당신이 연공할 때

에도 공은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고 있다. 당신은, 식사하거나, 잠을 자거나, 출근해도 모두 공의 연화 중에 있다. 당신은 연공해서 뭘 하는가? 당신이 연공하는 것은 法輪(파룬)을 가지(加持)하고,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모든 이런 기능(機能)과 氣機(치지)를 가지하는 것이다. 고층차 중에서 수련할 때는 모두 무위(無爲)이며, 동작 역시 기(機)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의념(意念)으로도 이끌지 않으며, 또 호흡 등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공(煉功)함에 또 어느 시간·장소를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어느 시간에 연공하면 좋은가? 자시(子時), 진시(辰時), 오시(午時)인가? 우리는 시진(時辰)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시에 연공하지 못해도 공이 당신을 연마(煉)하며, 당신이 진시에 연공하지 못해도 공이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며, 당신이 잠을 자도 공은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며, 당신이 길을 걸어도 공은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며, 당신이 출근해도 공은 역시 당신을 연마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연공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득도(得道)하려는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당연히 수련의 목적이다. 수련의 최종 목적은 바로 득도·원만(圓滿)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의 남은 생의 나이가 이미 아주 한정되어 있어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연공 노정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또한 성명쌍수 공법이므로 당신이 끊임없이 수

## 제 2 강

### 천목(天目)에 관한 문제

많은 기공사 역시 천목(天目)의 일부 정황을 말했다. 그러나 법은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 부동한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다. 수련하여 어느 한 층차 중에 이른 사람, 그는 단지 그 한 층차 중의 광경을 볼 수 있을 뿐, 이 층차를 넘어선 진상을 그는 보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이 한 층차 중에서 본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여긴다. 그가 것처럼 높은 층차 중까지 수련하지 못했을 때, 그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층차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상도 승화해 올라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천목,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이라 하는데, 결국 말들이 아주 혼란스러웠고 누구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천목 역시 저층차(低層次)에서 분명하게 말

아니라 속인사회 중으로 반영되어 와 속인의 번거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 자신이 가진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상관할 수 없는데, 이것은 오성(悟性) 문제다. 동시에 당신이 섞어 넣은 것이 이미 공을 난잡하게 하여 당신은 이미 수련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나도 여러분이 꼭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고, 당신이 다른 공법 중에서 진수를 전해 받는다면, 나 역시 찬성이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진정한 고층차 수련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하겠다: 현재 나처럼 이렇게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하는 사람은 둘도 없다. 당신은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오성(悟性)이 너무 낮지 않기를 희망한다. 많은 사람이 고층차로 수련하려 하는데, 이것을 당신 앞에 놓아주었건만 당신은 아마 여전히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당신이 도처에서 사부를 모시고 돈을 아무리 써도 당신은 찾지 못한다. 오늘 당신에게 문 앞까지 가져다주었지만 당신은 아직 인식마저 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며, 또한 제도할 수 있는가, 제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다.

련할 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연마(煉)하면 끊임없이 연장해 주어 근기(根基)는 좋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 당신의 연공 시간 또한 넉넉해진다. 그러나 한 가지 표준이 있는바, 당신이 하늘에서 정한 원래의 생명노정을 지나 나중에 이어온 생명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연공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므로, 당신이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편차(偏差)가 생기면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노정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이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지난 이후에는 이런 통제를 받지 않는데, 그때는 곧 다른 상태다.

방위(方位)를 말하지 않으며 공을 거두어들임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法輪(파룬)은 항상 멎지 않고 돌 뿐만 아니라 멎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당신은 즉시 가서 일을 보아도 되며 공을 거둘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일할 때, 法輪(파룬)은 즉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단번에 체외로 발산해 나간 에너지를 도로 흡수(吸收)할 수 있다. 인위적인 봉기관정(捧氣灌頂)은 당신이 아무리 받든다 해도 잃을 것이다. 法輪(파룬)은 영성(靈性)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줄 안다. 또 방위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모두 운동하고 있고, 은하계가 돌고 있으며, 9대행성이 태양을 둘러싸고 돌고 있고, 지구 또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의 이렇게 큰 이치에 따라 연마(煉)하는데, 어디가 동남서북인

가? 없다. 어느 방위를 향해 연마하든 모두 전 방위를 향해 연마하는 것이며, 어느 방위를 향해 연마하든 모두 동시에 동남서북을 향해 연마하는 것과 같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는 수련생에게 편차(偏差)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法輪(파룬)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듣기에는 아주 허황한 것 같지만, 이후에 당신이 배워 가면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너무 높은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로, 계통적으로 고층차의 법을 명백히 논술할 것이다. 만약 당신 자신의心性(썬썬)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많은 노수련생의法輪(파룬)이 이미 변형된 것을 발견한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다른 것을 섞어서 연마(練)했으며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法輪(파룬)은 왜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가? 당신에게 주었으면 곧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 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이 가지려는 것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 우주의 이치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강제로 수련하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누가 당신을 강제하여 당신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여러 가(家)의 장점을 취하고 누구의 것도 다 가져와서 오늘은 이 공을 연마(練)하고 내일은 저 공을 연마하는데, 목적은 당신의 병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병을 제거했는가, 못 했는가? 제거하지 못 했으며, 단지 당신에게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다. 고층차 중의 수련은 전일(專一) 문제를 중시하는데, 한 문(門)을 틀어쥐고 수련해야 하며, 어느 한 문에서 수련하든지 마음을 반드시 그 한 문에 두어야 한다. 줄곧 이 한 문 중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다른 공법으로 전입(轉入)하여 다시 수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한 세트의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하게 전해 내려온 한 세트의 것은 상당히 멀고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온 것이며, 그것은 모두 상당히 복잡한 연화(演化)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감각에 의거해 연공(練功)하는데, 당신의 감각이 다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연화과정은 다른 공간에서는 극히 복잡하고 현묘하여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안 된다. 마치 정밀계기에 당신이 다른 부속품을 하나 더 넣으면 망가지는 것과 같다. 당신의 모든 각개 공간의 신체는 모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현묘한 것으로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안 된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고. 당신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 안에다 넣으면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되어 곧 이 한 법문의 것을 교란하며, 당신은 때뿔게 나갈 것이다. 그뿐만